

## 폭스 멕시코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비센테 폭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중남미의 중심국가 멕시코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국립궁전에 그려진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를 보면서 자유와 독립을 향한 멕시코 인의 의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뜻깊은 독립기념일을 맞는 멕시코 국민 여러분께 미리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난 2000년 71년 만에 이룩한 정권교체는 멕시코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고, 과거사 청산과 정부개혁과 같은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

습니다. 각하의 지도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멕시코가 더욱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과 멕시코의 실질협력은 양국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각하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우호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역과 투자 증진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원과 IT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중견국가인 우리 두 나라는 교역과 투자,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서로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올해는 우리 두 나라 관계에 있어 특별한 해입니다. 1905년 1,033명의 한국인이 유카탄 반도에 첫발을 내디딘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폭스 여사의 말씀처럼 ‘100년 전 멕시코와 한국의 만남은 소중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한인 후손들은 개척정신과 강인한 의지로 멕시코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각하와 멕시코 정부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멕시코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 축배를 제의합니다.